

#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거대한 전환’ 기대

## 편집국장 칼럼

### 박간재

편집국장



판 기사는 고장난 레코드를 닮았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무렵이다. 60~70대 남자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 “이 신문은 정치도 못하는 빨갱이 김대중을 왜 맨날 좋은 쪽으로만 써주는거요” 당황했다. 어떤 말도 설득이 안됐다. 전문용어로 ‘마갱이’ 같았다. “좋은 정치도 많이 하는데 뭘 못한다는 거요?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시작했는데 대단한 업적 아닌가요.” 그가 한마디 한다. “아, 김대중이 남북관계 그거 쪼까(겨우 조금) 한거 말고 뭐가 있소.” 그의 알량한 지식쪼까리에는 김대중의 업적이 그저 ‘그거 쪼까’로 치부되고 있었다. “얘기 그만 하시죠”라고 했더니 답변이 가관이었다. “알았소. 인자당신네 신문 끊어버릴라요.”

최선은 보지 못하고 차악, 최악의 후보만 쫓는 그는 어떤 심보였을까.

5년 내내 ‘모든 게 김대중 탓’을 외쳤음에도 노무현 후보가 짝꿍 당선됐다. 모두가 환호했다. DJ정권 5년의 비난이 끝날 줄 알았다. 순진했다. 기득권 카르텔은 더 기승을 부렸다. 사시패스 한 노무현을 고졸 출신이라며 물어뜯었다. 국가미래 청사진을 내놔도 ‘묻지마 무시’했다. 연일 비판만 쏟아내던 세뇌교육이 먹혔던 것일까. 이명박과 박근혜가 연이어 당선됐다. 우매한 국민들이 그들에게 안맞는 ‘대통령 옷’을 입혀준 셈이다. 두 정권은 대한민국을 70년대로 후퇴시켰다는 조롱을 받았다. 유권자들은 왜 최선보다 차악, 최악의 후보를 선택했을까.

박근혜 탄핵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 받았다. 10여 년 시행착오 했으니 이제 정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이 없을 줄 알았다. 이 또한 오산이었다. 설상가상. 윤석열이 등장했다. 뭐든 잘 할 것처럼 호기 부렸다. 토론 중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건가.” 상대 후보 질문에 “먼저 미국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 그 때 호남인들은 알아봤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에 한량미달의 후보라는 것을. 비판여론에 고개라도 숙일 줄 알았다. 판단착오였다. 되레 80년 이후 사라진 구시대적 유행 ‘비상계엄’을 들고 나왔다. ‘처단’ 한다며 전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 덕택에 계엄령이 해제됐고 그는 탄핵으로 물러나게 됐다.

다. 유권자들은 왜 최선의 후보 대신 최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걸까.

88올림픽 당시 내무반에서 영화 ‘미션’을 시청했다. 정훈교육용 테이프였다. 심심풀이로 보겠다고 앉았다가 스펙터클 한 첫 장면에 압도됐다. 십자가에 묶인 한 남자가 강물에 떠내려온다. 깊은 물결속에 파묻히는가 싶더니 곧바로 천길 낭떠러지 폭포 아래로 고꾸라졌다. 이과수(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뜻) 폭포다. 영화 말미는 눈물과 감동을 보냈다. 스페인군에 다 죽고 겨우 살아 남은 5~7세 짝남녀아이 5명이 작은 악기 하나만 챙긴 채 책배를 타고 밀림 속으로 떠났다.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면서 과라니족의 생존을 이어갈 터다. 영화는 스페인군과 함께 했던 신부가 교황에게 임무완수 보고서를 읽으면서 마무리한다. “...그들은 죽고 우리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정 산자들은 그들이고 죽은자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죽은 자의 영혼은 산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죽은자의 영혼, 산자들은 기억하길

그 신부의 내레이션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다.

이틀후면 5·18 45주년이다. 옛 도청앞 광장, 금남로를 걷는 시민들 표정에는 웃음 대신 비장함이 엿보인다. 험악한 마음 달래보려고 광주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들렀다. ‘소리없는 목소리’ 전이 열리는 중이다. 방문객들의 표정이 비장하다. 하지만 다 돌아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동호 어머니의 독백이 담긴 제6장 ‘꽃 핀 쪽으로’를 듣는 순간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였다. 광주의 아픔은 진행형이다. 다행히 80년 주먹밥과 12·3 응원봉 열기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다시는 오월의 아픔을 없애야 한다. 최선이 아닌 최악의 후보를 뽑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산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 남아 있는 죽은자들의 영혼’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된 역사가 흐르고 있다. 지난 12·3 계엄에서 탄핵까지 1945년 해방정국 혼돈을 닮았다. 오는 8월15일 해방 80주년이 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듯하다. 문명은 발전하는데 인간의 지적 성숙은 퇴보하고 있어서일까. 해방 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길을 걸었다. 국민들은 김구 대신 이승만의 손을 들어줬다. 이승만 집권기에 조봉암과 신익희가 제거됐다.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로 쫓겨나자 박정희 군사독재자가 등장했다. 18년간 암울한 역사가 이어졌다. 선량한 사람들이 핍박으로 사라졌다. 박정희가 제거되자 전두환이 튀어나왔다. 87년 6월 민주항쟁도 소용 없었다. 전두환 육사 동기 노태우가 청와대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왜 최선 보다 차악, 차악보다 최악의 후보만 선택할까.

### ‘IMF 극복’에도 김대중 비난 일관

1992년 김대중이 낙선하고 김영삼이 당선됐다. 후과는 참혹했다. IMF 직격탄을 맞았고 국력은 추락했다. 1997년 마침내 경제극복을 천명한 김대중이 당선됐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은 변하지 않았다. ‘IMF 극복’에 대한 칭송 대신 깎아 내리기에 비쳤다.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으로 통일 분위기를 띄워도 그들에게 김대중은 ‘빨갱이’ 일뿐이었다. 쏟아지는 비

## 기고

### 홍승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 적극행정, 같이 만드는 가치 있는 변화

2024년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서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베스트 5’에 선정된 바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도 국민과 함께하는 병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병무청 자체 평가에서 ‘적극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올해도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병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병역이행과 미래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탐색하고, 전역 후 사회 진출까지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협약, 도움이 필요한 병역의무자들이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청년일자리스태이션과의 협업을 통해 복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집해제가 얼마 남지 않은 사회복무요

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라사랑가게’ 이용 혜택과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군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으로 입영하는 장정과 가족에게 감동과 추억이 있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앞서 읽어야 혁신을 이루듯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가치 있는 변화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중심성성’이라는 고사어가 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견고한 성과 같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 있는 변화, 즉 튼튼한 희망의 성을 함께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하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불편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공직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고, 통상 허가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돼 왔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의 해외 출국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7세 이하로 6개월 이내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1989년 6월 29일 창간		<b>전남매일</b>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

제10회 문학동네 신인상 당선작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얼어붙은 지역 고용시장 대책 없나

얼어붙은 광주·전남 고용시장이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장기 불황에 빠진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벌써 수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광주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불황을 보이고,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 종사자도 대폭 감소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넘쳐난다.

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광주의 취업자 수는 77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5,000명이나 줄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한 취업자 수가 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광공업에서 무려 5,000명이 감소했으며 농림어업 5,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 4,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4,000명이 줄었다.

전남도 전년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0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00명이 줄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7,000명, 광공업이 6,000명, 전기·

통신·운수·금융업이 2,000명 늘었으나 농림어업 분야에서 무려 2만 명이 줄었다. 지속적인 고령화와 한파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취업의 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광주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5,000명, 2,000명 늘었으나 상용근로자는 7,000명이 감소했다, 고용상태가 더욱 불안정해진 것이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임시근로자는 1만3,000명 증가했으나 상용근로자는 2만3,000명 줄었다.

광주·전남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이상기후나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의 부진, 그리고 미국의 관세 폭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일자리 감소는 심각한 문제다. 많은 지역민은 물론 젊은 지역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면서 인구 역시 줄어든다. 지역 발전의 동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지역 기업은 물론 지자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역 발전의 핵심임을 명심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 고령층 많은 전남 온열질환 각별한 주의를

때 이른 더위 등으로 해마다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자 전남도가 15일부터 온열 질환 응급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질병관리청과 22개 시·군 보건소, 45개 응급의료기관 등 69개 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온열 질환 대비에 나선 것이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할 경우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가볍게 여기다가는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농어촌 작업이 많고 고령층이 많은 전남은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가 매년 5월 하순께부터 가동하던 응급 감시체계를 10여 일 이상 앞당긴 것도 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환경과 최근 몇 년 동안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4명이던 전남 지역 온열 환자는

2023년 223명으로 79%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07명으로 83%가 늘었다. 2년 새 무려 3.3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런 여름은 평년보다 더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개개인 스스로 미리 기온을 확인해 폭염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당뇨병·치매·정신질환 등 만성 질환자는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 만큼 본인은 물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이나 창문이 닫힌 자동차 홀로 남겨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는 이웃이나 친인척 등에게 반드시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자칫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이다. 모두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기 바란다.

## 나사

송승환

산과 산 사이에는 골이 흐른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골과 왼쪽으로 돌아가는 산이 만나는 곳에서는 눈부신 햇살도 죄어들기 시작한다. 안으로 파고드는 나선은 새들을 물고 와 쇠소리를 낸다. 그 속에 가를 묻은 저녁이 떠오른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그만큼 깊어지는 어둠한 번 맞물리면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떠올랐던 별빛마저 쇠가루로 떨어진다. 얼어붙어 녹슬어 간다.

봄날 빈 구멍에 새로운 산골이 차 오른다

## 김미경의 시 이야기



산골짜기를 비추는 햇살을 “나사”로 본 시인은 자기만의 시선으로 숲을 재해석했다.

“햇살도 죄어들기 시작한다”에서 “나사”인 햇살이 골짜기 안을 들어가기가 뻑뻑한 것을 보면 이곳은 옹혼한 숲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책상을 만든다면 나사가 날뻗지와 판재를 연결하는데 필요하듯 이 시에서 “햇살”이란 “나사”가 좌우에 펼쳐지는 두 산자락을 이어주고 있다. 또한 “안으로 파고드는 나선은 새들을 물고 와 쇠소리를 낸다”는 햇살이 강해짐에 따라 그 안에 있는 풀꽃들, 풀벌레들, 다람쥐, 토끼, 새들, 관목들과 나무들의 생명력이 더욱 왕성해져가는 여름 숲임을 알 수 있다.

초록 숲, 새 소리, 햇살을 철로 된 나사 쇠소리 쇠가루 기름 묻은 저녁으로 비유했기에 서정적인 정서에는 좀 이물질 같은 반면에 집안 가구에 박혀있는 나사에서 새소리를 듣고 울창한 숲을 깨낼 수도 있다. 이렇듯 울창한 숲을 비추는 햇살을 나사로도 바꿔볼 수 있는 시적 상상력에 필자는 엄청난 창작의 미학을 느껴 가슴이 벅차움을 느꼈다.

시의 끝부분은 “어둠 한번 맞물리면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의 변화를 보이고 그 다음 행간의 흰 여백은 이 산골 겨울과 인생의 겨울을 극복하는 과정을 내포한 긴 침묵을 느끼게 한다. 그 다음에 오는 “봄날 빈 구멍에 새로운 산골이 차오른다”가 증명해 준다.

삶을 숲에 비유 한다면 “나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여러 유형의 “나사”가 있었으나 필자는 우리 삶 가운데 서로를 연결해주는 크고 작은 사랑이리라 생각해 본다.

시인·전남매일 신춘문에 당선자